

Q3

소나무숲 가꾸기를 통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나요?

A 소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가지에 달려있는 침엽수로 ‘테라핀’ 등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산불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연료량을 줄이는 숲 가꾸기가 꼭 필요합니다. 산불 피해를 저감하고 예방하는 숲 가꾸기는 솎아베기와 가지치기가 있습니다. 솎아베기는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위주로 별채하고 내화력이 강한 활엽수종은 모두 남겨둡니다. 45년생 기준으로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의 간격을 4.5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. 또한, 가지치기는 가장 큰 나무를 대상으로 줄기에서 뺀어 나온 가지를 나무높이 약 6m 이상까지 베어주면 지표면의 불이 서 있는 나무의 잎과 가지로 옮겨붙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숲 가꾸기가 잘 된 지역은 산불이 발생할 때 탈 수 있는 연료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수관화로 변지지 않고 지표화가 진행되어 주택이나 건축물이 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. 숲 가꾸기는 유일하게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산불 예방책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